

## 건축의 합리성과 텍토닉성

## The Rationality and Tectonics of Architecture

설계자 / 김병현(건축사사무소 장) 대담자 / 정기용(기용건축연구소)

Kim Byung-Hyun &amp; Jung Gu-Yong

일 시 / 1997. 6. 10(화), 장 소 / 전주리베라호텔



왼쪽 : 김병현, 가운데 : 김봉열, 오른쪽 : 정기용

정기용 \_\_\_\_\_ 먼저 중소도시에서 제일 큰 호텔이라고 해봐요 대도시의 특급호텔과는 그 규모 등 여러 면에서 다를 것이지만 호텔이라는 것이 교통표지판처럼 국제 공통어로 된 어떤 표준화된 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전주의 지역성이 선생님 작품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또 과연 그런 경우에 지역성이라는 것이 특별히 문제시되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김병현 \_\_\_\_\_ 전주의 지역성하면 좀 보수적인 도시, 호남지역 문화의 중심지, 아직도 한옥지역이 보존된 도시, 시내에서도 주변의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좀 평화스러운 지방도시로 생각하게 됩니다. 지역적 자존심이 강한 도시로 전주 시청이나 전주역사 등이 전통 한식건축을 주제로 한 공공건물이 있는 것도 이런 연유로 볼 수 있습니다. 설계의 구상단계에서 호텔이 가져야 할 전주의 지역성과 문화의 표현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은 하였지만 그 표현의 방법과 정도는 이 호텔사업이 가진 현실적 제약 때문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반대로 정직한 현대적인 기법으로 전주라는 현대도시, 주변환경에 대응하면서 인접 한옥지역 같은 기존질서를 부정하지 않는 건축으로 접근함이 이 도시를 위해서도 지방호텔사업을 위해서도 바른태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굳이 이 지역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두가지의 외관요소, 입구와 객실타워 외벽처리가 전주라는 지역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호텔은 진입, 도착하는 과정이 다른 유형의 건물보다 모두 중요하게, 어느 정도는 예식적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전래건축의 일주문이나 건물의 처마 아래의 공간이 한 장소에의 도착이라는 상징적 표지가 되고 있습니다. 비록 가벼운 금속으로 만들어졌지만 깊숙한 입구 캐노피도 이런 의미에서 호텔에의 도착을 상징하고 예식화해 주고 있습니다. 객실외벽은 공사비와 기간의 제약상 단순 상자형의 외형을 벗어날 수 없었으므로 이 외벽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노력이 집중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금속

과 유리라는 얇은 재료로 마치 벽지를 바른 것 같은 패턴만 있는 커튼월에서 벗어나 비록 얇은 재료로 만들어져도 이런 자체가 가진 구조적 성격이나 그 뒤의 독립된 객실을 은유하는데는 이와같은 외관 특성을 가진 한국의 전통 장농의 구성에서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정기용 \_\_\_\_\_ 다시 얘기하면 모던한 건축언어로 주변의 전통적인 풍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어떤 특별한 지역성을 차별화하기 보다는 호텔에 어프로치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런데서 전통이라는 말은 이상하지만, 하여튼 전통건축에 내재하고 있는 그런 어프로치방식을 차용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여쭙보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호텔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국제적인 호텔 비슷한 것들은 많은데 비해 아직까지 독특한 한국호텔다운 호텔의 탄생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 처음으로 처마(캐노피)라는 것이 새로움을 주기는 하는데 도대체 한국의 고유한 호텔은 가능한 것인지 즉 한국성을 지닌 건물의 관점에서 여쭙보겠습니다. 호텔이 유럽의 귀족적인 스타일에서 미국으로 가면서부터 서비스 개발을 통해서 좀더 대중화시키고 전문화하곤 합니다. 그런데 한국호텔의 모델이 가만히 보면 주로 일본이나 미국에서 오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가로서 한국의 땅에 어떻게 보면 오래된 어느 호텔이라고 하는 특성, 즉 호텔의 특수한 기능 등을 어떻게 소화해야 되는지 그런 어려움이 특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현 \_\_\_\_\_ 그동안 참여한 호텔설계는 국내외 합쳐 여러 건이 되는데 여기서 얻은 것은 호텔이라는 건물 유형은 그 위치와 종류에 관계없이 일차적인 접객업소라는 상행위 장소에 이보다 더 중요하게 이 장소가 도시인의 일상생활에서 벗어난 새로운 체험의 세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적으로 이 도시의 고객이나 외지의 방문객이 다같이 호텔이라는 연출된 무대에서 편안하고 즐겨워야하고 그러면서도 다른

도시와는 또다른 이 지방의 지역성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호텔사업은 매우 국제화한 고도의 전문업으로 특별한 한국적 모델을 추구한다는 것은 특수한 사업주의 지원이 없는 한 가능한 일이 아니고 또 크게 의미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호텔이라는 고도의 경쟁력이 요청되는 사업에서 경쟁력이 높은 서구식 모델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호텔의 실내환경에서 한국 또는 이 지역문화를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 호텔의 서구식 공간구조에서는 굳이 전례양식적 실내건축을 찾기보다 주요 실내공간에 외부전망, 한옥지역, 전면가로, 오목대를 실내에서 전망을 가지므로 느끼는 장소성도 좋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호텔의 실내환경은 연출된 체험의 추구라는 면에서 어느 정도는 허구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내의 호텔에서 창밖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과장이나 환타지도 문제입니다.

정기용 \_\_\_\_\_ 제가 여쭙보려고 했던 것을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호텔과 도시와의 관계에 대해 여쭙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호텔에 가서 만나고 회의도 하고 가족모임 등등 다시 말해서 호텔은 도시민들의 어떤 삶의 방식을 가장 고급한 차원에서 공급하는 모델처럼 되어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호텔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숙박하기 위해서 호텔에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고급스럽고 특별한 즉 비밀스러운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리베라호텔도 전주에서는 품위를 한치원 높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80년대에 롯데호텔이 을지로에 지어진 다음에 우리나라에 몰딩문화가 확산되었거든요. 옛날에는 몰딩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또 루이 14세 의자라든지 우글쭈글한 바로크양식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많이 침투해서 그것이 마치 이제는 어떤 형식이 되어버렸는데, 그것의 전파를 주도한 사람은 건축가가 아니라 인테리어 디자이너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리베라호텔도 도시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삶을 아마도 제가 보기에 이것도 틀림없이 모델이 되어서 바뀌리라 보는데 도시 전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선생님께서 역점을 두신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_\_\_\_\_ 이 호텔은 건축으로서, 그 장소로서 이 도시의 중심호텔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도시에 필요한 높은 수준의 숙박과 모임의 장소와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걸맞는 건축은 철저한 도시건축물, 현대건축이면서도 기존 주변건축을 부정하지 않는 좀 관대한 건물이 중요한 성격으로 생각되었고 이것은 실내에도 유지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지방의 열악한 호텔사업환경에서 운영이 가능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후방지원시설입니다. 이 호텔의 후방시설은 사업주도 자랑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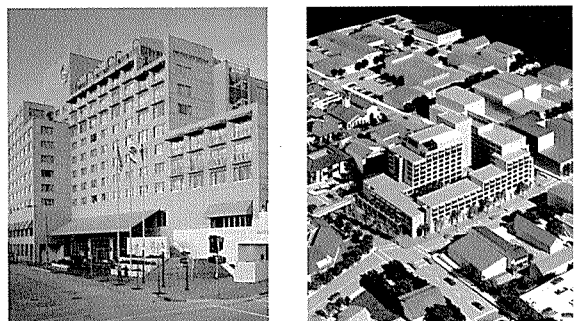
정기용 \_\_\_\_\_ 외부에서는 그렇고, 건축 전체 배치에서는 아까 오목대에 같이 올라가 보셨습니다. 주변에서 오목대와 한옥이 중요한 부분이 될텐데 이것들과 호텔과는 어떻게 대응하셨는지요.

김병현 \_\_\_\_\_ 한옥부분은 일단은 영구적인 환경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보존지역이 해제되어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형태의 지역으로 변모가 될 것이니까 앞으로 변모한 이후를 거당해서 가로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호텔에서는 객실이나 식당에서 한옥을 보는 풍경을 최대한 허용했습니다. 오목대도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오목대와 호텔에서 어떤 조형적 관계를 찾기보다 오목대는 이 도시에서 하나의 표지물이고 호텔은 도시내의 건축으로 보았습니다.

정기용 \_\_\_\_\_ 전면 대로상에서 어프로치하면서 보이는 입면부분과 한옥하고 만나는 배면은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요.

김병현 \_\_\_\_\_ 전면은 호텔의 진입과 도착을 수용하는 어느 정도는 예식적인 공간이나, 후면은 주차의 도시상가에 면한 가로건물로 해석하였습니다.

정기용 \_\_\_\_\_ 앞에서 어프로치를 말씀하셨는데, 전체 규모나 이미지가 몬트레이 웨라톤호텔과 유사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것은 미국호텔 같아 보이고 리베라호텔은 한국호텔 같은데 이미지에서 조금 다른 묘한 차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돌출한 객실 발코니와 저층부와 고층부의 매스 관계가 유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은 미국의 웨라톤호텔은 정말 도시적인 연속을 가진 호텔처럼 보이는데, 리베라호텔은 진입에서 조경



웨라톤호텔 / 몬트레이, 캘리포니아 / 컨벤션센터와 연결된 시티호텔

부분과 자동차가 접근하는 곳을 도로상에서 떨어뜨림으로 해서 도로와 연계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웨라톤호텔이 이 작품의 모델이 되었던 것은 아닌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김병현 \_\_\_\_\_ 모델이라고 보기보다는 몬트레이에서 느꼈던 것, 호텔은 이래야 된다는 것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 호텔은 몬트레이와는 전혀 다른 환경과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몬트레이라는 도시는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발전된 도시를 가지고 있고 미국 서부 건축중에서도 베이지역 건축이라고 해서 프라스타 벽에 다양한 창호 등의 언어를 어느정도 지켜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가진 디자인 프라이어리티는 한식이라는 적극적인 양식건축과는 무관한 공장생산을 거치는 재료에 의존하는 서구식 공법을 써야 됐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독특한 전면 도착공간과 객실외벽처리였습니다.

정기용 \_\_\_\_\_ 우리나라의 많은 호텔들이 일반적으로 주현관 앞부분을 주차 등을 위해 넓게 확보하는 바람에 도시의 연속적인 면을 끊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미국의 호텔들도 도심에서는 그런가요.

김병현 \_\_\_\_\_ 꼭 정해진 관례는 없고 위치와 대지조건에 따라 다르겠지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도심에 있는 호텔들은 비교적 도시의 가로에 근접해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봉열 \_\_\_\_\_ 이 호텔의 계획에 있어서 궁극한 점이 있다면 건물의 앞면에는 상당히 여유가 있는데 비해서 뒷면은 여유가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병현 \_\_\_\_\_ 그러니까 앞면이 넓은 대로에 면한 호텔 전면은 문화의 도착 공간의 배경을 만들고 있고 뒷면은 향후 변모될 상가위주의 도시가로에 면한 상업건물의 외관입니다.

정기용 \_\_\_\_\_ 제가 인터콘티넨탈호텔 관계로 뉴욕에서 선생님을 처음 만나 본 것 같습니다. 인터콘티넨탈호텔과 비교해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외관에서 나오는 이미지, 예를들면 우리나라에서 청자색 비슷한 녹색 분위기, 즉 밝은 색과 녹색의 대비, 이런 것이 리베라호텔에서도 보이는데, 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였다는 것으로는 이해가 되면서 도시풍경에서 호텔의 외관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연속해서 사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김병현 \_\_\_\_\_ 녹색은 약간 유리 자체가 가진 색채이니까, 커튼월에는 투명한 부분이 있고 불투명한 부분이 있는데, 쉽게 불투명한 색깔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청자색이었기 때문에 써 왔는데, 인터콘티넨탈은 녹색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태여 바꿔보려는 생각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유리라는 색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욕심대로 한다면 여기에 장능에서 보는 것과 같은 어두운 색깔이 하나쯤 더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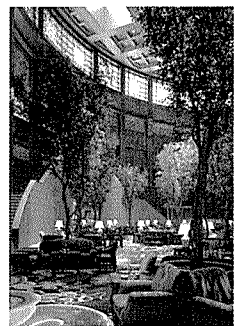
정기용 \_\_\_\_\_ 호텔설계의 어려움은 한 지붕 속에 각기 다른 여러 서비스 공간들을 배분하고 동선을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기에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정말로 자급자족하는 조그만 도시인데 결국은 모듈이 갖는 제약이 클 것으로 압니다. 주차장과 객실과 그것을 모듈로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거기에 꿰어맞추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호텔을 설계하는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모듈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해결하셨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김병현 \_\_\_\_\_ 세가지 전혀 다른 공간이 수직으로 복합된 것이 이 호텔입니다. 주차장, 영업장, 객실의 공통분모를 맞추다 보니까 8.3m가 됐습니다.

정기용 \_\_\_\_\_ 특별히 오버랩시키면서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데, 제가 여쭙보려고 하는 것은 그런데서 오는 제약이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1층 평면에서 보면 퍼즐을 풀듯이 했어야...

김병현 \_\_\_\_\_ 맞습니다. 첫단계가 퍼즐플랜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건축화하는 과정을 거친 겁니다.

정기용 \_\_\_\_\_ 그 다음에 호텔에서 인테리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건축가는 어느 정도 개입하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특히 로비 공간에서 리셉션쪽에 조그만 정



인터콘티넨탈호텔 / 강남구, 서울 / 한국무역센터와 연결된 특급호텔

원이 보이는 등 정감이 갑니다만 들어오면서 보니까 천장이나 전체적으로 충분히 개방감을 보여주지 못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보내 주신 카다로그를 보면서 미국에 건설 때의 건축과 여기에서의 건축이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허버트 대학의 중정이미지 같은 공간이 이 호텔에서는 없어야 되는가. 땅을 보면 자연히 그런 것이 보여지는데 여기와서 건축하시면서 한국의 제약들에 너무 굴복하시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김병현 \_\_\_\_\_ 제약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100% 극복 못하는 것이 건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호텔에서 대지와 프로그램의 제약으로 중정은 어려웠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불가능한 정도의 짧은 시간안에 해야된다는 어려운 제약에서 내가 가진 직관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새로운 것을 개척한다기 보다 내 직관에 의해서 제일 탈없이 할 수 있는 계획방법을 사용한 호텔입니다. 호텔에서는 영구적인 것과 일시적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외관, 주요공간은 남지만은 그 외는 모두 일시적인 것입니다. 모든 마감, 실내장치물, 객실, 그런 점에서 로비에 대해서는 10년 후에는 전혀 다른 건축으로 변모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기용 \_\_\_\_\_ 대체로 외국에서 오래 계시다가 한국에 오신 분들은 몇 년 있으면 자꾸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김병현 \_\_\_\_\_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내 생활과 건축환경이 변하니까 당연히 표면에 나타나는 건축도 변하는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어떤 원칙은 있습니다.

김봉열 \_\_\_\_\_ 덧붙여서 여쭙보겠습니다. 제가 대학시절에 PA잡지에서 본 것 같은데, 파사데나 프라자를 봤는데 이런 것이 정말 좋은 건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일 감동받은 것이 공공성이었는데 귀국하신 다음에 대부분 상업건축을 하시니까 물론 한계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잘 안보였습니다. 메인 스페이스가 오픈되어 있다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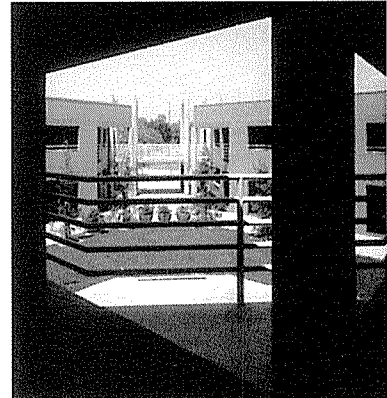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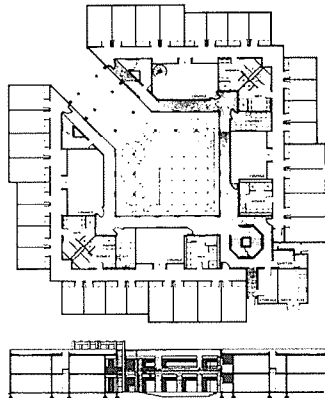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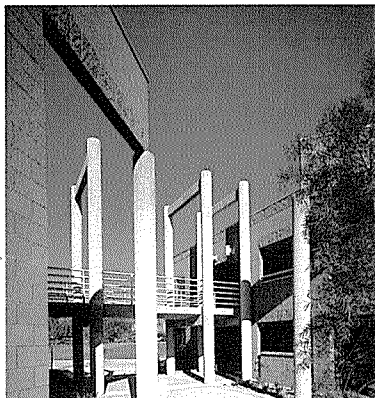
김병현 \_\_\_\_\_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호텔이라는 사업상의 제약과, 20개월 이내에 설계와 시공을 해야된다는 건축가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제약 때문이었습니다. 또 개방되고 수직성의 메인 스페이스도 이 규모의 호텔에서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김봉열 \_\_\_\_\_ 그와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과 비교했을 때 비단 이 작품이 아니라도 다른 작품들에서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기용 \_\_\_\_\_ 건축주의 취향과 관련있지 않을까요.

김병현 \_\_\_\_\_ 그 제약은 사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은 더 가혹할 정도로 제약이 있습니다. 굳이 차이라고 한다면 건축에 대한 인식인 것 같습니다. 문화적 가치로서의 건축에서는 우리가 더 열악한 처지에 있습니다.

정기용 \_\_\_\_\_ 그래서 제가 감히 선생님의 건축에 대해서 느낌을 말씀드리다면 한마디로 단아함, 단정하고 우아하고, 요란스럽지 않고 과장되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이 인테리어에서도 연속적으로 나타나서 장악할 수는 없는 것인지,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외관은 남고 모든 것은 일시적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로비부분에서만이라도 선생님의 건



허버트대학 기숙사 / 클레어먼트, 캘리포니아 / 3개동으로 구성된 대학기숙사

축언어가 같이 들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병현 \_\_\_\_\_ 아쉬움은 나도 동감입니다.

김봉열 \_\_\_\_\_ 의무적으로 인테리어는 별도로 준 것인가요.

김병현 \_\_\_\_\_ 별도의 설계자 미국의 INDESIGN이 참여하여 설계과정에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건축가의 의도만으로 공간을 만들 수는 없고 호텔이 영업으로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찾는 또 건축외 체험을 위해 어느정도는 내부설계가 일임이 되었습니다. 가령 바닥재도 화려한 대리석이 아니고 전주에서 볼 수 있는 전벽돌이 건축적으로는 선호되겠지만 특급호텔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 부족하므로 가능하지 못했습니다.

정기용 \_\_\_\_\_ 그런데 제가 보았던 인터콘티넨탈호텔 같은 경우 처음에는 너무 평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10년이 흘렀는데 건축이 눈에 튀지 않으면서 세월을 잘 견뎌내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전히 조용한 힘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한국이라는 특수한 다이내믹한 세상에서 소위 호텔만이 아니라 건축을 한다는 것에서 선생님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은 어떤 것인지 전반적인 차원에서 리베라호텔만이 아니라 혼돈, 무질서한 도시 속에서 건축을 하실 때 이것만은 놓치지 않겠다는 원칙이 있으신지 여쭙보겠습니다.

김병현 \_\_\_\_\_ 그 원칙은 내가 가진 건축의 프라이어리티입니다.

먼저 건축은 철저히 현실의 기초 위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도시, 사회, 경제의 현실과 여기서 오는 제약을 외면할 수도 외면해서도 안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현실의 기초위에서 건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컨셉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호텔과 같은 상업 건축과 이 프라이어리티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 자신을 지나치게 합리적인 건축을 추구한다는 충고도 듣고 좀 더 도전적 자세도 필요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 호텔이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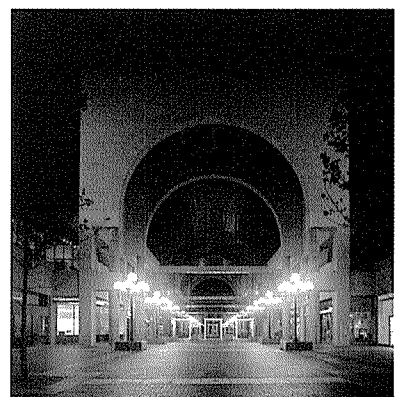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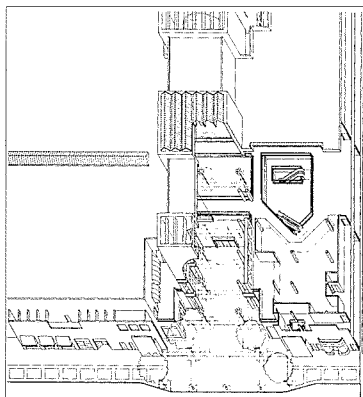
정기용 \_\_\_\_\_ 마지막으로 이 리베라호텔 다음으로 진행하고 계신 작품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요. 선생님께서서는 건축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결심도 혹시 하고 계신지요.

김병현 \_\_\_\_\_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얘기이고, 한 건축가의 커리어는 조각공이 쌓는 벽돌 벽 같은 것입니다. 한 장 한 장 쌓아가야 하는 나의 벽 쌓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더 쌓아 올라가야죠. 지금도 내 나이에 비해서 나를 완전히 찾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기용 \_\_\_\_\_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제가 보기에는 후배건축가에게 좋은 점으로 보여지는 것은 지금 한국의 젊은 건축가나 다른 여러 사람들이 많은 모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정도 버텨낼지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외국에서 들어오신 많은 분들의 건축에서 뭔가 특이하고 색다른 것을 자꾸 발견하려고 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 현재 건축이 조금은 절도있고 제대로 문법을 갖춘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시대이기도 한 듯합니다. 선생님의 작품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어디까지 끌고가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병현 \_\_\_\_\_ 나는 내 능력이 그래서 그런지 건축을 하나의 획기적인 포움(Form)을 만드는 수단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차라리 포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큰 차이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가 여기서 더 나를 찾을 수 있는 길이라면 어떻게 건축을 완성하느냐에 있습니다. 건축의 텍토닉성을 추구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종의 하나입니다.

— 전주리베라호텔 비평을 쓴 김봉열(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교수도 이번 대담에 함께 참석했다. —



파사데나 플라자 / 파사데나, 캘리포니아 / 도시재개발계획에 의한 대규모 쇼핑센터